하늘

박 두 진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머얼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스미어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익는다

몹시 더운 여름이었지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는지, 여름 하늘의 별자리는 찬란하고 계곡마다에서 반딧불이도 날고 소중한 추억이 되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지요? 어느새 초가을 따가운 햇볕과 여름 햇볕이 서로 자리를 바꿔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하늘이 느껴집니다.산 위에 펼쳐진 하늘은 산을 안고 더 높이 높이 꿈을 꿉니다. 바다 위에 누워 있는 하늘은 넓게 넓게 세상을 품습니다. 우리 나라 산과 들 위의 하늘이 각각 다르듯이 세계의 하늘도 모양이 다 다르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 유럽을 여행중입니다.
런던의 하늘과 구름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파리의 하늘을 지나 아침이면 모습을 감추고 후두둑 빗방울 뿌리는 사색의 하늘, 라인 강변의 본에서 박두진 시인이 누워있던 풀밭과 능금 익어가는 높고 높은 유리 하늘 그리워합니다.

〈글/김영숙(시인, 노래그룹 해오른누리 기획실장)〉